

부산 198% 오를 때 광주는 14% 내려

상장사 시총액 갈수록 격차

최근 4년 분석... 광주·전남 2조8천억 전국 최하위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 수와 상장기업들의 시총액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7~8곳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증시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퇴출과 분사 이전 등으로 지역 상장기업 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체 상장사 1천721개사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상장사는 1천271개사로 73.85%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상장사의 45.32%에 해당하는 780개(코스피 352, 코스닥 428)가 집중됐고 다음으로 경기(414개, 24.06%), 인천 (77개, 4.4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의 경우 각각 14개사와 11개사에 그쳐 상장사 비중이 0.81%, 0.64%로 두 지역을 합하더라도 2%에 크게 못미쳤다.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은 주가에 발행 주식수를 더한 시총액에서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시총액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시총액이 클수록 기업 규모와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사의 시총액은 광주가 1조2천546억원, 전남이 1조5천783억원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0.16%와 전남 0.20%로 16개 시도 중 각각 15위와 13위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4년동안의

시총액 증감률을 보면 전국 평균 55.12%가 늘었지만 전남은 39.29% 증가에 그쳤고 광주는 오히려 14.12%가 줄었다. 이 기간동안 시총액이 줄어 든 곳은 광주와 제주(-20.79%)밖에 없었다.

반면 경남은 254.37%, 부산 198.64%, 울산 173.35% 등 영남지역 상장사들의 시총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증가율 1~3위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시총액 1위 기업은 광주의 경우 금호타이어(3천458억원), 전남은 금호산업(9천42억원)이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김정원소장은 "2006년 이후 지역에서 신규 상장한 기업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최근 C&중공업이 퇴출되고 디지털택이 분사를 서울로 이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산업 지분 팔고 금호석화 대량 매입

박찬구회장父子 주식 갈아타기 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찬구 석유화학부문 회장이 아들과 함께 금호산업 주식을 팔고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대량 매입해 그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 회장과 아들 준경씨는 15~18일 금호산업 주식 191만 8640주(3.94%)를 장내에서 처분하고, 금호석유화학 보통주 220여 만주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박 회장과 준경씨의 금호산업 지분 비율은 보통주 기준 2.19%→1.44%, 3.92%→0.71%로 각각 줄어들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 지분 비율은 5.30%→6.10%, 4.71%→7.87%로 크게 늘었다. 박 회장 부자가 함께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율은 2.15%로 줄어든 반면, 금

주식시장선 "그룹서 금호석화 완전분리 포석" 분석

형 박삼구 회장과 '대우건설 풋백옵션' 이견 소문도

호석유화학 지분율은 13.97%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주식매매가 같은 시기에 이뤄졌고, 금호산업 주식 매도금액이 총 340여억원, 금호석유화학 주식 매입금액이 총 290여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식 '바꿔타기'가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업계와 증권가는 이번 주식 매매로 박 회장 부자와 형인 박삼구 회장 부자의 똑같은 주식 비율이 깨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은 네 아들에게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똑같이 6.11%, 10.01%씩 나

눠주었고, 박 회장과 박삼구 회장은 이를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이 비율이 깨진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대주주 개인의 지분 매매라는 그룹 측의 해명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금호석유화학을 그룹 계열에서 분리하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과 함께 그룹의 두 축을 형성해 왔지만, 석유화학은 사실상 그룹의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금호산업의 주식을 줄여

나가고,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늘리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그룹에서 석유화학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금호그룹이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약 3조5천억원을 지원받는 대신 올해 말까지 대우건설 주가가 3만1천500원을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던 '풋백옵션' 문제를 둘러싸고 형제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나온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는 형인 박삼구 회장의 주도로 이뤄졌는데, 최근 풋백옵션 문제로 금호그룹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형 주도로 이뤄진 '물집 불리기'에 동생인 박 회장이 의견을 달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필수기자 bungy@

'실손보험' 최고 200만원 본인 부담

개인의보 보장한도 90%로 축소

앞으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 가운데 최고 2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의 최고 100%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와 재무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10%를 개인 돈으로 내야 하며 그 금액의 한도는 200만원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 상품을, 생명보험사는 80% 보장 상품을 팔고 있다.

예컨대 본인 부담금이 3천만 원 나오면 종전에는 전액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의 한

자 개인이 내야 하며 2천800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 원, 병원은 1만5천 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 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방안은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7월 중순에 감독규정을 바꿀 계획으로, 이때부터 개정안 시행 전 사이에 100% 보장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향후 계약 갱신 때 보장한도를 90%로 축소할 방침이다. /연습스



기아 '포르테' 친환경 체험하세요

라이빙 이카데미'를 운영하며, 25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객들의 신청을 받는다.

기아차가 오는 7월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의 출시를 앞두고 친환경 운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에코드라이빙' 프로그램

대한통운 지분 매각

금호생명 현금 확보

금호생명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 전량을 매각해 지급여력비율을 120% 후반대까지 끌어올렸다.

금호생명은 대한통운 보유주식 41만8천913주(1.84%)를 전량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금호생명은 이번 매각으로 약 38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지급여력비율은 120% 후반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생명의 대한통운 지분 매각은 한 때 30%대까지 추락한 지급여력비율을 높여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실 것입니다 2. 보청기입니다 3. 보청기입니다

국제보청기

www.kjhi.com

본점 (062)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충무점 (062) 227-9970
 락산점 (063) 851-2422

산행안세

www.kjhi.com

K2 동산복·동산화
 특가상품 이월권
 1. 예매권 2. 경희자 무대

02-334-3811

OUT2

www.out2.com

www.kjhi.com